

국군인쇄창, 디지털 윤전실 개관

스크린 디지털 인쇄기로 BOD 시스템 완비

국군인쇄창이 스크린 디지털 윤전기를 도입하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 약 35명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2일 디지털 윤전실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군인쇄창은 디지털 윤전기 도입을 통해 완벽한 BOD(Book on Demand)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정리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국군인쇄창이 디지털윤전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국군창 통합 이후 인쇄소요 증가로 인한 생산능력 초과, 외주인쇄물 및 긴급 컬러인쇄물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의 인당 생산성과 매출액 증가를 추구함으로써 기관경영 성과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있다.

이를 위해 장비현대화 TF운영을 통한 인쇄창 연간 업무량 분석 및 시스템 도입필요성 검토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디지털 윤전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이 입증됨으로써 국방부와의 예산 및 장비 정수협의를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인쇄공정의 슬림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및 적시성을 고려한 디지털화로의 시스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한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조직으로 조기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새로운 시스템인 BOD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와 국군창 간 원고편집 및 교정 시간을 최소화하고, 인쇄물의 특성 및 품질을 고려해 소량·다품종 인쇄물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적기 지원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윤전시스템의 구성은 BOD서비스→디지털윤전기→후

가공으로 이뤄져 있어서 인쇄물 생산에 대한 통합적인 연동 및 조정 작업이 수행된다. 즉 BOD서비스를 통해 인쇄가 가능한 PDF 또는 PS파일을 생성한 후 디지털윤전기를 통해 양면 롤 형태로 출력해 후가공기로 인쇄된 양면 롤지를 자동 접지와 무선제책 통해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다.

디지털윤전시스템에서 긴급작업 및 고객맞춤형 다품종 소량 인쇄물을 알맞은 시기에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능은 BOD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BOD 시스템은 고객이 직접 편집 및 주문 처리를 통해 인쇄 승인과 교정작업이 효과적이고 출판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원대상 부대에 대한 제한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작업 공정이 단축됨으로써 동일한 시간에도 보다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증대된다.

인쇄창은 이번 디지털윤전시스템을 통해 소량 다품종 인쇄를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과 실시간 인쇄를 통한 긴급인쇄요구를 해결하고, 3군 통합 이후 늘어난 인쇄물량에 대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군창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물류시스템(전군택배)과 연계 운영할 경우, 고객만족을 위한 적시 지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